

2000년도 손해보험산업 중점추진과제

본 그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예상되는 금융시장 환경변화 요인들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내용들을 간추린 것이다.

— 편집자

1. 가격자유화 경쟁력 확보

2000년 4월부터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돼 부가율 중심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순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격 자유화로 인한 요율인하 압력에 대비, 순보험료 보다는 부가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정한 영업보험요율과 사업비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위험별·계약자별 통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인수경쟁과 가격 적정성 사이에서 경쟁력 있는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영업환경 변화 대책

IMF를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은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으로 국제동조화 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더욱 강해져 미국 등 선진국 금융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대폭 증대되었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본격적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과는 달리 시장 개방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분야에 충격을 주지는 않았으나 보험기업의 경영면에 있어서는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거품현상이 도처에 남아 있어 향후 경쟁이 국제적 양상을 띠게 될 경우 은행 및 생명보험 못지 않은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인건비, 점포비 등 저비용으로 수익성에서 국내 보험사들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고객들 또한 외국 보험사에 이질감 없이 접근하는 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외국 보험사를 선호할 경향마저 감지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3. 종합 리스크관리체제

금융환경 급변으로 보험사는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각 보험사별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중소형사들의 공동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최고경영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므로, 최고경영진은 사내 위험에 대비한 전부문의 수익을 체크하고 평가하며 임직원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4. 보험사기적발·방지대책

중복보험계약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면 다양한 역기능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 보험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보험사기적발 및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보험사기 방지대책으로서는 사기성 클레임건에 대한 확인·조사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 보험사기 방지대책 수립 및 교육을 전담할 독립부서로서 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보험사기 지표를 개발하고 「보험사기 적발 전문가 시스템」 개발·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보험사기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복·고액계약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업계공동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언더라이팅 기법의 선진화

외국보험사의 진출로 기업보험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손해보험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보험위험이 증가하고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므로 언더라이팅 기법을 선진화하여 적절한 위험선택을 할 필요가 것이다. 특히, 국내 손보사는 물론 재보험사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재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보험영업이익이 시현될 수 있는 선진적인 위험인수 기법의 연구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진다.

6. 개인연금보험의 중요성 재인식

손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고객을 장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보험 만큼 중요한 상품은 없다. 특히 개인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을 가입하여야 하며, 5년 이상 유지하여야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만기후 연금수령시에도 최소 5년 이상 수령하여야만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결국, 개인연금보험은 손보사와 고객을 최소한 15년 이상 연결하는 초장기 상품이다.

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성 보험상품은 판매조직 소득의 근간을 이루는 상품이며 자동차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교육보험 등과의 연계와 추가판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품이다. 따라서 개인연금보험의 평생고객 확보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7. 독자적인 영업진로 모색

종전까지는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전

략이 모두 동일하였다. “매출성장을 통한 시장 점유율 향상”이 영업부문의 지상과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상위사의 영업형태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개방과 경쟁 격화 등 새로운 영업환경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전략 차원에서 보험사별로 대형화, 전문화, 금융전문그룹화 등의 향후 진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독자적인 진로가 결정된 이후 여기에 부합하는 영업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써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풍수재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의 상품을 개발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홍수보험의 경우에는 2001년 중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피해 관련 보험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대 위험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마련(예: 금융재보험 등) 또한 필요할 것이다. ◎

8. 환경변화 대응상품 개발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기상이변이 속출함으로

국제회의안내

개최일자	회 의 명
2000년	
03.05 ~ 08	—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merical Combustion (미국, http://www.siam.org/meetings/nc00)
04.04 ~ 08	— World Fire 2000(독일, http://www.ife.org.uk)
04.10 ~ 14	— 3rd International Seminar on Fire and Explosion Hazards (영국, http://www.uclan.ac.uk/commerce/fire.htm)
04.30 ~ 05.05	— 제38차 RIMS 연차총회(미국, 샌프란시스코) (http://www.rims.org)
05.02 ~ 04	— Halon Options Technical Working Conference(HOTWC-2000) (미국, http://www.nmeri.unm.edu/cget/confinfo.htm)
05.22 ~ 28	— 4th Asia-Oceania Symposium on Fire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 http://www.hasemi.arch.waseda.ac.jp/the_4th_AOSFST.html)
06.15 ~ 17	—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formance-Based Codes and Fire Safety Design Methods(스웨덴, http://www.brand.ith.se/PBDConf/)
10.23 ~ 27	—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Hazards,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Industrial Explosions(일본, e-mail: dobashi@comb-saf.t.u-tokyo.ac.jp)